

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중국/대만 언론 동향

< '20.12.10(목) 해외수산협력센터 중국어 전문관 >

※ 최근 중국과 대만에서 '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' 관련 보도가 다수 있어 모니터링 진행

□ 중국 언론 동향

< 중국 주요 언론사 보도 내용 (20.10.19~20.12.10) >

언론사	언론사 정보	주요 기사 제목 및 내용
펑바이신문	상하이 기반 유력매체	▶ 일본 후쿠시마 나미에마치 지하수 판매, 부정적 이미지 전환 시도, “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았다”(해양방류 내용 有)
양시신문	중국 국영 중앙방송소속 매체	▶ 日, 후쿠시마 주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초과 검출, ‘오염수 해양방류’방안 반발 야기
관찰자망	상하이 기반 유력매체	▶ 日언론, “대만인 5명,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시찰”
베이완신문	베이징시 주요 석간신문	▶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220일 후, 한국 도달... 영향이 얼마나 큰가
톈쑤망	인터넷 매체	▶ 왜 일본은 전 세계의 반대에도 120만톤의 핵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 하는가
중국망	중국 국무원소속 언론매체	▶ 백만톤 핵 오염수 태평양 방류?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처리 어떻게 하나
환구망	국제뉴스 전문 관영매체	▶ 日, 오염수 해양배출 시도에 한국, 분노하다 ▶ 방사선 기준치 초과 90만배, 오염수 제주도 도착우려
시나재경	인터넷 매체	▶ 日, 다음주중 후쿠시마 핵 오염수 태평양 방류여부 결정, 중국 외교부 대응

- (평바이신문) 일본 후쿠시마 나미에마치 지하수 판매, 부정적 이미지 전환 시도
“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았다”¹⁾ (12.8)
 - 일본 도쿄 전력,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나미에마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자 해당 지역 지하수 판매 시작
 - 원전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으며 일본은 이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고 밝혀 주변 국가들의 우려 유발
- (양시신문) 일본 후쿠시마 인근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초과 검출, 오염수 해양방류 방안 반발 야기²⁾ (11.26)
 - 일본정부는 대체할만한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결정된 것이 없다며 희석하면 바닷물 속에 배출해도 안전하다고만 밝히고 있음
 - 많은 공개된 연구 결과에서 방사성 물질은 인간의 DNA에 손상을 일으키고 세포를 파괴한다고 알려져 처리된 오염수가 안전한지는 미지수
 - 일각에서는 일본 연근해에 나타난 9개의 축수가 달린 문어는 방사성 오염수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 필요
- (관찰자망) 일본 언론, “대만인 5명,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시찰”³⁾ (11.19)

1) 출처 : 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685482535994495819&wfr=spider&for=pc>

2) 출처 : 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681237885043545256&wfr=spider&for=pc>

3) 출처 : 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683750107776166357&wfr=spider&for=pc>

- 일본경제산업성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대만 유학생, 직장인 5명을 선발하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시찰활동 진행
- 일본 경산성의 소개를 들은 후 참가자들은 “일본의 오염수 탱크 수용량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며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지가 어려운 문제”라 공감
- (베이완신문) 일본 핵 오염수 방류 220일 이후 한국 도달, 인류 DNA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가⁴⁾ (11.12)
 - 스가총리는 원전 시찰 과정에서 처리 후 오염수를 음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직원은 “희석한다면 가능하다”라고 답변
 - 일본 내부에서도 어떻게 처리할지, 바다에 방류를 해야하는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
 - *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50%의 일본 국민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한국의 코리아 타임즈는 ‘값싸지만 위험한’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정부의 해양방출 계획을 비판하며 “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환경재난”으로 묘사
 - 중국 외교부는 “일본정부는 지금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고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이에 기초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”고 밝힘
- (팅쑤망) 왜 일본은 전 세계의 반대에도 120만톤의 원전 오염수를 해안에 방류하려 하는것인가⁵⁾ (11.11)

4) 출처 : <https://www.takefoto.cn/viewnews-2331680.html>

5) 출처 : <https://new.qq.com/omn/20201111/20201111A0FY0Z00.html>

- 오염수 해양방류 방안은 일본 국내외적으로 반대의 역풍을 맞고 있음
-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을 통해 “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해 해양 환경, 식품안전과 인류 건강에 이미 깊은 영향을 주었다”고 밝힘
- (중국망) 수백만톤 핵 오염수 태평양 방류?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처리 어떻게 하나⁶⁾ (10.28)
 -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주변 국가뿐만이 아닌 먼 곳의 연안국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 것
 -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례처럼 주변 국가들과 연합하여 후쿠시마에 ‘방호벽’을 설치하는 방안, 혹은 일본의 오염수를 일본 국내의 다른 곳으로 옮겨 봉하여 보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
 - *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후 핵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씌웠던 콘크리트벽 붕괴 가능성으로 방사성 물질 유출이 염려되자 각국은 협력하여 새로운 방호벽을 설치함
- (환구망) 방사선 기준치 초과 90만배, 방사성물질 오염수 제주도 도달 우려...일본의 오염수 배출시도에 한국 분노하다⁷⁾ (10.22)
 - * KBS 인용 보도
 - 한국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“만일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면 국내외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든 강경대응할 것”이라 밝힘
- (시나재경) 일본, 다음주중 후쿠시마 핵오염수 태평양 방류여부결정, 중국 외교부 대응⁸⁾ (10.19)

6) 출처 : http://news.china.com.cn/2020-10/28/content_76850531.htm

7) 출처 : 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681237885043545256&wfr=spider&for=pc>

8) 출처 : 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680968434113659601&wfr=spider&for=pc>

- 한국 연합뉴스 기자는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“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어떤 입장인가”에 대해 질문
-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“일본정부는 자국 국민과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태도로 오염수 처리로 인해 초래될 영향에 대해 주동적으로 엄격하고 정확하며 공개투명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주변 국가들과의 충분한 협의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란다”고 밝힘

□ 대만 언론 동향

< 대만 주요 언론사 보도 내용 (20.11.19~20.12.10) >

언론사	성향	주요 기사 제목 및 내용
연합신문	보수, 친중, 반정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, 환경단체 “향후 40년간 위험” ▶ 대만 외교부, “조속히 처리해 고지할 것 요청”
자유시보	진보, 반중, 친정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민간단체,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항의...정부 “이미 입장 전달” ▶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(CPTPP) 가입을 위한 후쿠시마 5개 기업 식품에 대한 개방추진 가능성(12.9보도)
중시신문	보수, 친중, 반정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후쿠시마 핵 폐기물 오염수 해상방류...환경단체, 대만 외교부에 반대입장 전달요구 ▶ CPTPP가입, 미국을 고려하는 정부, 방사성물질 함유 음식도 먹게 될 대만인(12.9보도)
newtalk 신문	진보, 반중, 친정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일본 오염수 방사능 1년 기준치 90만 배에 달해...한국정부 분노, “방류시 소 제기할 것”

○ (연합신문) **일본 오염수 해양방류, 환경단체 “향후 40년간 위험”**⁹⁾
(11.20)

- 오염수 방류 소식이 보도된 후 대만의 전국학폐가행동플랫폼은 외교부를 향해 “방류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해양생태계에 큰 위협을 가져다 줄 것”이라 항의
- 녹색 국민 행동연합을 비롯한 전국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은 일본의 해양 방류에 대해 강한 우려 표명

9) 출처 : <https://udn.com/news/story/7314/5029310>

- 대만 외교부는 “주요 정부 기관을 통해 일본에 2014년의 원자력 관리통제정보교류 양해각서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해 처리방식을 정하여 고지할 것을 요청하였다”고 밝힘

○ (자유시보) 민간단체,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항의, 외교부 “이미 입장 전달”¹⁰⁾ (11.19)

-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, 대만의 환경단체들은 반대의견을 전하기 위해 일본-대만교류협회를 찾아가 의견서를 보냄
- 대만 외교부는 “이 사안은 해양환경, 생태보호, 국민건강안전 등과 관계된 문제로 외교부도 고도로 중사하고 있으며 주 정부 기관인 행정원 원자력 위원회를 통해 일본에 의견을 전달하여 대만의 권익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다”고 밝힘
- 또한 “정부는 오늘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서한의 형식으로 일본대표부와 일본 정부에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였고 이와 동시에 일본정부가 신중하게 평가하여 조속히 대만에 관련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”고 밝힘

○ (중시신문) 후쿠시마 핵 폐기물 오염수 해상방류계획, 환경단체 외교부에 반대입장 전달요구¹¹⁾ (11.19)

- 대만의 전국핵폐기행동플랫폼은 “올해 일본정부가 의견을 취합할 때 대만 환경 단체들은 일본 경산성에 반대 서한을 보낸바 있으나 일본 정부는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”고 토로
- 이어 “처리 비용이 낮다는 이유로 해양 방류의 방안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동아시아

10) 출처 : <https://news.ltn.com.tw/news/life/breakingnews/3356307>

11) 출처 : <https://www.chinatimes.com/realtimenews/20201119002589-260407?chdtv>

이웃국가들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'고 밝힘

- 방류 계획을 밝힌 후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일본은 한 달 뒤에 다시 결정할 것이라 하였으나 계속해서 방류에 대해 암시
- 지구 국민기금회 부회장은 “대만 정부는 공식적인 외교 루트를 통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여야 한다”고 표명

○ (newtalk 신문) 일본 오염수 방사능 1년 기준치 90만 배에 달해...한국정부 분노, “방류시 소 제기할 것”¹²⁾ (10.22)

* KBS 뉴스 일부 인용보도

-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불만 유발
- 독일의 한 연구소에 따르면, 방류 후 57일 쯤 오염수는 태평양의 절반까지 이동가능하고 220일째에는 제주도, 400일째에는 한국 서해안 도달
- 국제원자력기구는 “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처리방식은 기술적인 가능성과 합리성이 있으나 일본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가져올 영향을 고려하고 주변 국가,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”고 언급

12) 출처 : <https://newtalk.tw/news/view/2020-10-22/483234>